

## 이주의 본당 소식

\*본당의 새로운 소식을 알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위령 성월**  
11월 위령 성월 연미사를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 **신부님 일정**  
\* 10월 24일 - 27일 : 꾸르실료 참석  
오늘 미사 후 친교실에서 신부님 환영 파티가 있습니다.
- **주일 미사 집전**  
\* 10월 27일 : 김기현 신부님(프린스턴 성당)
- **위령의 날 묘지 방문 및 연도**  
10월 31일(목) 낮 12시 미사 후
- **열린 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소성당>**  
11월 6일(수) 오후 7시 30분에 소성당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사목 협의회 모임**  
11월 7일(목) 오후 7시 30분에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 **찬양, 치유 미사 <매월 셋째 주일>**  
남부 뉴저지, 필라델피아, 델라웨어 지역 연합 찬양, 치유 미사  
일시 및 장소 : 11월 17일(일) 오후 4시, 체리힐 성당  
\*찬양, 미사, 안수 및 치유 예식, 친교
- **메디케어 설명회**  
11월 3일(일) 미사 후 친교실에서 저녁 식사와 함께 메디케어 설명회가 있습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 **말씀의 전례 어린이 교실**  
매 주일 미사에 '말씀의 전례 어린이 교실'이 운영됩니다. 어린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2020 신자 주소록 발간**  
각 구역별로 신자들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모아서 회장님께 제출 해주시길 바랍니다.
- **성가책 판매**  
소 : \$25, 대 : \$30
- **성모님 꽃 봉헌**  
성모님께 꽃 봉헌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치유의 은총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관우 바오로 부제, 이길자 데레사, 배향숙 루시아, 한 베드로>

## 모두함께! 구역 소식

\*구역 여러분 모두의 참여로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 **구역 모임**
  - 1) 마리아 구역 : 11월 9일(토) 오후 6시 짱가네에서 있습니다.  
<송현배 가정 주관>
  - 2) 마틸다 구역 : 11월 10일(일) 미사 후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김충수 마르코 형제님 주관>
  - 3) 비오 구역 : 11월 16일(토) 오후 6시30분 윤모니카 자매님 댁에서 있습니다.
  - 4) 글로리아 구역 : 11월 23일(토) 오후 6시 Ruby Buffet(체리힐)에서 있습니다.  
<강옥화 소피아 자매님과 홍혜자 마리아 자매님 주관>

## 신자들의 소식 나눔터

\*환영, 환송, 축하등 모든 신자들의 소식 나눔터입니다!

## 알립니다!

- \* 이번달 상품권 판매는 **마리아** 구역입니다.
- \* 이번달 친교실 청소 담당은 **비오** 구역입니다.  
다음달 친교실 청소 담당은 **마리아** 구역입니다.

# St. Yi Yun Il John Korean Catholic Mission 체리힐 한인 천주교회

주임신부: 김도윤 프란치스코  
사목회장: 윤모니카



2001 Springdale Rd. Cherry Hill, NJ 08003 (ST. MARY내 위치)

856-912-1355

chkcc.org

### 미사안내

주일 : 오후 5시  
평일(목요일) : 낮 12시

### 성사안내

고백 성사 : 미사 30분 전  
혼인 성사 : 3개월 전 신청  
병사 성사 : 위급할 시 언제나  
유아 세례 : 1개월 전 신청

### \*단체모임 안내

여성 레지오(평화의 모후)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울드레아 : 매월 셋째 목요일 오후 7시  
열린 기도회 :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소성당  
예비자 교리 :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30분  
사목회 : 추후 공지

# 오늘의 미사 전례

\*미사시작 20분 전에 기도와 성사로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입당성가	337번 미사 시작
제1독서	집회서 35, 15ㄴ-17. 20-22ㄴ
화답송	◎ 가련한 이 부르짖자 주님이 들어 주셨네.
제2독서	티모테오 2서 4, 6-8. 16-18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하느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네. ◎
복음	† 루카 18, 9-14
봉헌성가	61번 주 예수와 바꿀 수는 없네
성체성가	188번 천사의 양식
퇴장성가	22번 천지 생기기 전



# 오늘의 묵상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스스로 의롭다고 자신하며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에게 바리사이와 세리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비유에 나오는 바리사이와 세리는 유대교 입장에서 완전히 대조되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사이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그것을 가장 우선시하는 사람들이면서 또 율법을 지키기 위한 세부 규정을 만들어 낼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으로는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받았고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위치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세리들은 당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던 로마 제국을 위하여 백성에게서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족적으로는 반역자요 수탈자의 앞잡이였으며 종교적으로도 죄인 중의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두 사람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비유로 들려주십니다. 먼저 바리사이는 양팔을 벌리고 자신만만하게 서서 자신은 죄인이 아닐뿐더러 단식 규정과 십일조 규정을 지키는 경건한 사람임을 하느님 앞에 내세웁니다. 반면에 세리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느님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께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바리사이가 아니라 세리였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사이의 기도는 하느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거나 무엇을 청하는 내용은 없고 오직 자신을 내세우는 내용 뿐입니다. 반면 세리의 기도는 간단하면서도 절실하고 진지합니다. 스스로 죄인임을 자각하고 하느님 앞에 그것을 인정하며 하느님의 자비에 모든 것을 맡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하느님 앞에서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며, 하느님의 자비를 청해야 하겠습니다. (이성근 사바 신부)

# 우리들의 기도

## 평화의 기도

-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 -

오 주님,  
저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오 거룩하신 주님,  
제가 위로 받기 보다는 위로하며 살게 하시고,  
이해 받기 보다는 이해하며 살게 하시고,  
사랑 받기 보다는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소서.

우리는 베풀어야 받을 수 있고,  
용서해야 용서 받을 수 있으며,  
죽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 이주의 미사전례 봉사자

주 일	연중 제30주일 10월 27일	연중 제31주일 11월 3일	연중 제32주일 11월 10일
제1독서	박영희 마틸다	김정숙 이사벨라	하국일 암브로시오
제2독서	하국일 암브로시오	김희동 프란치스코	김재숙 제노베파
봉헌자	이정지, 박영희		

## 우리들의 주일정성

< 10월 20일(일) >

봉헌금	\$494.00
교무금	\$650.00
	송현배(7-12), 박영희(10)
미사예물	\$30.00
<b>Total</b>	<b>\$1,174.00</b>